하늘의 씨 임신 출산의 기쁨

(예레미야 31:1~40)

3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늘의 씨 임신 출산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의 씨 임신 출산의 기쁨'
본문 32절의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마음에서 더욱 하나님을 외면하고 간교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에게 휴가를 주어서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밧세바는 다윗의 씨를 임신한 상태였기에 우리야와 동침을 한들 태어나는 아기가 다윗의 자손임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느 대학병원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여자 목사님의 상담 경험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주 부잣집 며느리가 첫 아기를 낳았는데 흑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씨가 잉태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본문의 31~34절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자들도 구약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내용을 담은 부분이라고 일컫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옛 언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지켜질 때에 의미를 갖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지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쇠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때에 미디엄으로 익혀도 빨간 핏물이 흘러나오는 상태입니다. 살과 함께 피도 먹게 되는데 이것을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은 소의 죽음입니다. 앞선 말씀에 이어서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셨고 58절에서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도 말씀하시며 스스로를 음식에 비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자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소가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으로 계속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의 죽음에서 비롯된 영양분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예수님의 죽음에서 비롯된 영양분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침 흘리며 갖기 원하는 가치들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과 기쁨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얻음으로써만 가능해짐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것이고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예가 임신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영어에서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의 착상(着想)과, 임신을 의미하는 착상(着床)을 모두 '컨시브(concei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곧 마음의 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생각과 소원과 계획 같은 것들이 착상되고 자라나서 말과 행동이라는 형태로 출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은 본래 판단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혼자서 임신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판단을 받아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판단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임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로 여기기에 이러한 내용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란 것도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들어있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 마음에 잉태하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출산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출산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래알처럼 많고도 보배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자가 혼자서는 임신할 수 없지만 남자와 부부가 될 때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면 이 보배로운 생각들이 마음에 착상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임신하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본래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로부터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보배로운 하늘의 뜻으로 임신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된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출산되는 삶이야말로 온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왕가는 물론이고 대소신료들과 백성들도 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마음에 착상되어 생각으로 자라나고 말과 행동을 통해 태어나게 될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씨를 계속해서 출산해갈 때에 우리의 삶은 에덴이 됩니다. 마치 사막 같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출산할 때에 오아시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라고 하신 것처럼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이 이루어진 BC.144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이 결혼하여 부부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40년이 흘러 BC.586년에 선민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세월 동안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부부의 계약이 결코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지키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보자면 본문에서 언급되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과 이들이 고통에서 회복될 것이 예언되고 있지만 새 언약을 주신들 지킬 수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계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해방의 예언도 의미가 없습니다. 84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시내산에서 맺은 부부의 계약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사야서를 한 단어로 줄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에 상응하여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으면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데, 선민들이 세상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선민은 이를 따르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복을 빠짐없이 내려주시면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선민이 지켜야 하는 계명과 율법은 곧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아내인 선민이 임신할 때에 온전한 말과 행동을 출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바라신 선민과의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명과 율법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은 주어졌는데, 선민은 이미 세상의 씨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씨를 임신한 상태에서 우리야와 동침한들 태어나는 것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옛 언약이 이런 식으로 지켜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아들이기 전에 세상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고 있었기에 결국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결과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선민들이 남편으로 삼은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풍요와 다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에 대해 침을 흘리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민들도 이 가치들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840년 동안 달래보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를 가져야만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마음이 세상 가치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노릇 못한다. 자녀들이 일류대학을 들어가야 성공한다. 배우자감을 찾는 첫째 조건은 철밥통 직장이다.’라는 생각들이 마음에 씨가 됩니다. 당연히 말과 행동으로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와 다산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리따운 아내가 될 수만 있다면 세상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남편이라면 사랑하는 아내를 굶기지 않을 것이며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편이신 하나님께 예쁜 아내가 되어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늘의 씨를 잉태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 출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잉태하고 말하고 행동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

리를 예쁜 아내로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치의 포로가 되어 사로 잡혀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바른 관계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출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선민들조차 이러한 삶이 죄악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천국의 씨가 아니라 이 세상 씨를 잉태해서 출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한 차례 멸망시키고 새 언약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씨를 임신하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을 출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생각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등의 세상이 주는 생각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전히 세상의 씨를 임신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과 행동이 출산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하늘의 씨를 임신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임신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임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과 행동을 출산할 수 있고 삶은 에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순간마다 출산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앞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음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마음을 살리는 영양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이는 곧 생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세상의 가치에 포로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늘의 씨가 아니기에 죄를 그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배는 만족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채찍에 맞아 살갗이 찢어지셨습니다. 좋아하면 유착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붙여서 유착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넣어야 하는 골은 이 세상에서 더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면 비로소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늘의 씨를 출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옛 언약은 세상의 가치에 포로 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침 흘리며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똑같이 갖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과 계명을 받습니다. 마음에서는 세상의 씨를 임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출산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민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세상 기치들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씨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삶을 살면서도 부부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이런 상태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미 세상의 가치라는 씨를 마음에서 임신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마음의 임신 과정을 파고듭니다. 세상의 씨를 임신한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씨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씨가 마음에 착상되고 자라나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말과 행동으로 출산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지 아닌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임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야다로써 곧 부부가 동침하여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부부가 동침하듯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알게 되고 그 증거는 기쁨과 만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전부 하늘의 씨를 출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여자 혼자 임신을 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씨를 받아야 판단과 생각이 생겨나고 말과 행동으로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씨를 받든지 하나

님의 씨를 받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씨를 출산하며 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한국 남자와 했지만 흑인 아기가 태어난다면 결혼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인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지 않아야 될 아기가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인 숫자가 늘어날까? 어떻게 해야 예배당을 크게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나와서는 안 되는 아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끊임없이 먹는 새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판단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임신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출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를 출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아내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으로 십자가를 봄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씨를 임신하고 말과 행동으로 출산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최고로 예쁜 아내들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